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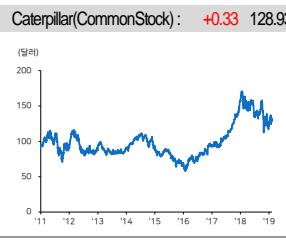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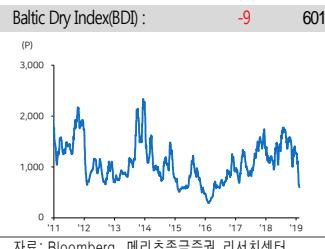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306.7	15.6	131,500	2.7	-1.9	-1.1	2.3	91.6	43.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806.2	21.5	356,500	1.9	0.6	-5.4	3.0	4.8	4.0	0.6	0.6	14.1	14.7
현대엘렉트릭	607.7	5.5	29,850	-2.5	23.9	36.5	34.5	2.8	25	0.3	0.2	9.3	9.7
현대건설/기계	1,089.5	7.5	55,300	-2.8	7.0	43.0	29.5	3.5	2.6	0.4	0.3	11.7	13.9
삼성중공업	5,392.8	18.8	8,560	1.1	14.7	14.9	15.5	54.0	26.8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537.8	10.5	33,000	-1.2	4.1	-1.5	-3.4	11.5	16.3	1.0	0.9	9.0	5.5
현대미포조선	2,452.4	11.9	61,400	-0.3	1.8	25.8	2.3	13.2	9.6	0.5	0.4	3.6	4.8
한진중공업	126.2	3.8	1,190	-1.2	31.3	-39.1	-28.1	23.9	6.0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259.0	19.7	120,000	-1.6	4.8	43.5	12.1	21.2	20.6	2.9	2.6	14.6	13.3
두산밥캣	3,393.4	27.6	33,850	0.9	3.5	-6.6	7.5	12.4	11.7	1.0	0.9	7.4	7.6
현대로템	2,448.0	3.0	28,800	-2.5	1.8	28.0	3.4	37.1	25.3	1.7	1.6	4.5	6.3
하이록코리아	249.8	47.7	18,350	-2.9	7.0	-4.4	11.6	8.3	7.6	0.7	0.7	8.8	9.0
성광밴드	324.6	15.7	11,350	-0.9	2.7	-3.8	-0.4	1,003.3	40.7	0.7	0.7	0.1	1.8
태광	311.4	12.0	11,750	-1.7	-1.3	-0.8	0.4	702	34.3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300.3	13.5	11,100	-1.8	8.8	-0.9	14.1	-28.8	10.4	0.4	0.4	-0.1	4.0
두산인프라코어	1,775.6	21.5	8,530	-0.5	4.8	3.0	12.4	5.9	5.5	0.9	0.8	17.7	16.3
HSD엔진	177.6	5.4	5,390	-3.4	-2.2	23.1	2.1	-14.1	-13.0	0.8	0.8	-4.7	-6.0
한국항공우주산업	3,309.3	14.3	33,950	0.3	0.9	6.6	6.4	495	24.5	3.0	2.7	6.1	1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83.5	14.7	32,350	1.9	-1.4	0.8	-0.5	121.1	23.4	0.7	0.7	0.7	3.2
LIG넥스원	778.8	8.1	35,400	0.1	-13.1	0.7	-4.2	71.9	21.1	1.6	1.5	2.0	22.6
태웅	216.1	4.8	10,800	-1.4	6.9	-3.6	2.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11.3	4.4	7,830	-3.2	3.3	-8.0	1.4	-15.5	30.0	3.0	2.9	-17.5	9.9
한국카본	338.5	14.8	7,700	-2.4	11.6	6.8	9.4	119.9	24.1	1.1	1.1	0.9	4.5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IMO under pressure to end 2020 regulations uncertainty

IMO는 다음주 예정된 PPR(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소위원회 회의에서 IMO 2020 규제 대응 관련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5월 예정된 IMO 규제 이행관련 MEPC 회의에 앞선 회의임. 회의 주제는 스크루버에 대한 기술적 표준 및 처리수 배출 등으로 알려짐. (TradeWinds)

Indian energy demand to double

인도 Modi 총리에 따르면 인도 에너지 수요는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임. 매년 5% 이상 수요가 성장 중이며, 세계 3대 에너지 소비국이 됨.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오일메이저와 협력을 추진 중이며, 석유 및 가스 부문 Value Chain 전반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Upstream)

MR탱커는 ice-class라야 돈벌이 확실

VesselsValue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쇄빙 기능을 가진 Ice-class MR탱커와 핸디사이즈 PC선 발주 감소 및 지역별 선박 수급 불균형으로 운임이 올랐다고 알려짐. 운항 중인 선박은 292척인 반면, 발주된 선박은 2척에 불과함.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따라 PC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선박뉴스)

'조선 빅딜 반대' 대우조선 노조 18~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지회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18~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짐. 대우조선 지회는 현대중공업 지부와도 맹각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했고, 두 회사 노조는 밀실협약과 일방적 매각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LNG선주들, 향후 2년간 풍성한 과실 즐길 것

Evercore에 따르면 LNG 생산 프로젝트 가동증가에 따라 2019~20년 LNG선 운임은 하루 8.5~9.0만달러에 달할 전망임. 동시에 LNG 선주들은 높은 운임 수입이 예상됨. 그러나 향후 3~4년동안 110척 이상의 LNG선이 인도되며, 2021년에는 공급과잉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선박뉴스)

"대우조선 매각, 작게봐도 이득"…이동걸의 독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결정이 공적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면서, 민영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으로 설명함. 산업은행 입장에서 본 소송적 관점에서도 이득이 되는 결정으로 판단함.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주가가 오른다면 회수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질 전망임. (조선비즈)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